

看護員 麻醉師의 小考

김 화 속

< K.S.C 병원 C.R.N.A. >

“마취사”라 하면 의사 혹은 어떤 특수한 기술자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일이 많다.

더구나 간호원이 마취를 한다던 많은 사람이 의아하게 여길 뿐더러 여자의 직업으로서는 너무 당돌한 감을 주는 모양이다. 또 우스운 것은 어떤 마술법을 이용하는 “요술사”같은 아련한 느낌을 갖게 하여 환자들이나 그 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은 커녕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솔직한 고백을 들은 일도 있다.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수술을 한다던 누구나가 다 먼저 마취를 한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는 우선 마취사를 기다리고 또 마취사로부터의 설득으로 정신적인 위안과 안도감을 받을 줄 안다.

그런데 과연 이 마취는 누가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Anesthesia School이 따로 없고 또 마취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술방 간호원 또는 보조원들이 임시로 그 기술만을 익혀 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과학적이고 안

전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과학적인 교육과 세련된 마취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의 Nurse Anesthetist System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큰 종합병원에 국가의 승인하에 Anesthesia School이 설립된다. 마취과정은 한 전문분야로서 Anesthesia Department에 속해 있으며 보통 18개월부터 26개월간에 그 course를 마칠 수 있다. 더 말할것 없이 Registered Nurse 즉 R.N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만 된다.

졸업 후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Board Examination에 pass해야만 완전한 Nurse Anesthetist가 된다. Registered Nurse를 R.N. 이라고 하듯이 Nurse Anesthetist도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라고 이것을 줄여 C.R.N.A라고 한다. 그리고 또 자동적으로 American Association Nurse Anesthetist의 membership도 갖게 된다. 그러므로 C.R.N.A. 또는 A.A.N.A

라고도 한다.

이렇듯 중대한 position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마취학은 꼭 재미있는 학문이다. 그렇다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마취는 즉 잠을 재워주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먼저 기초학이 되는 Anatomy, Physiology를 이해해야 하며 특히 Chemistry 그리고 Pharmacology 등 범위가 넓다.

한 예를 들어 마취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가 늘 사용하는 Ether나 Na-Pentothal 같은 것을 보통약 같이 손쉽게 만져왔으나 이제는 그것 같이 두려운 약이 없음을 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의 Anesthetic gas가 없고 Na-Pentothal, Ether와 N₂O를 주로 사용하고 또 몇가지의 muscle relaxant druge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몇가지를 가지고도 잘 이용하던 어떤 major operation이던지 못할 것이 없고 하던 할수록 흥미있고 더 배우고 싶어진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미국의 Nurse Anesthetist들의 거의가 old miss던지 또 간호원 생활을 오래 하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또 수술방 간호원으로 오래 있다가 권탁가 나면 Anesthesia를 공부하여 직업 전환을 하려고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O.R에 오래 있게 되던 겁쟁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한번 손대고 싶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부딪쳐 보면 호기심과 흥미만으로 안타깝고 당황해야 할

때를 메꿀 수는 없다. 부지런히 배운 지식으로 침착해야 할 것이며 머리를 짜내고 성의를 다 한다면 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수술실에서의 환자의 생명은 Anesthetist에게 달려 있다고 하지만 역시 Surgion의 cooperation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어떤 Dr들은 무조건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엉뚱하게 두리할 요구를 하여 마취사를 괴롭힐 때가 많다. 특히 마취사가 간호원인 경우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배우고 연구하여 많이 알아야 되겠다.

대부분의 Surgion은 원하기를 환자라 하여금 완전히 죽었다 깨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마취사의 직책은 그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 그들이 수술하는 동안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중대한 일이지만 환자라 하여금 안전한 마취를 해서 신체 어느 기능이던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마취로 인한 post operative complication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것이 마취사의 책임이므로 실수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pre-operatively make round를 하고 적당한 마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후 약 1주간도 역시 책임있는 observation과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Nurse Anesthetist는 Doctor Anesthetist와 별로 구별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기계적인 기술 그것보다도 학술적이고 세련된 실력있는 Nurse Anesthetist가 많이 활발히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